

# 트럼프 '그린란드 구상'…나토 동맹을 시험하다

유럽·캐나다, 미국 압박에 모든 시나리오 대비 나서  
동맹 균열 우려 속 긴장감 고조…러시아도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축으로 한 서방 동맹에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럽 각국과 캐나다는 외교·군사·경제 전반에 걸쳐 대응 수위를 높이며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련해 "미국과 나토 모두에게 매우 좋은 결과를 가져올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입장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그린란드가 "국가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병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고 보라"는 원론적 답변으로 여지를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증액하도록 압박해 왔다가 "나보다 나토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없다"고 자평했다. 이는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도 방위비 증액 요구를 지렛대로 동맹국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그린란드에 연대하는 유럽 국가들을 향해 추가 경제적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근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 유럽 8개국에 내달 1일부터 모든 상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보 문제를 무역 보복과 연계하는 방식이 서방 동맹의 긴장을 한층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즉각 반발했다. 엔스프레데릭센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동원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정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최소 단체 분량의 식량 비축을 권고하는 지침 배포를 준비 중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맞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유

럽과 미국 모두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역전쟁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이 아니지만, 불가피하다면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토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알렉산더 졸프랑크 독일 연방군 작전지휘사령관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갈등은 나토 영토를 러시아 공격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는 이 상황을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집단방위 원칙이 흔들릴 경우 나토의 핵심 이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오랜 핵심 우방국인 캐나다도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강대국들이 관세와 공급망을 무기로 삼는 세계 질서의 파열이 일어나고 있다"며 중견국 간 연대를 강조했다. 캐나다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최악의 경우 미국의 침공까지 가정한 국방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치·군사적 긴장 속에서 그린란드에서는 상징적 저항도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상징인 '마가(MAGA)' 모자를 패러디 한 '미국 물러가라(Make America Go Away)' 문구의 빨간 모자가 반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를 지나는 덴마크 해군 함정.

/연합뉴스

다. 최근 그린란드와 덴마크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는 이 모자를 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 병합 시도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구상이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나토 결속과 서방 안보 질

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다보스포럼을 전후해 미국과 유럽 간 연쇄 회담이 예정돼 있어 갈등 양방에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 프랑스 이어…영국도 미국과 거리두기

트럼프 평화위 초대 거절 가닥…“푸틴 참여 부담”

미국의 전통적인 최우방 영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위원회 초청을 거절하기로 기다렸을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영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키어 스타터와 영국 총리는 막대한 가입비를 내야 하는 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에 가입할 계획이 없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스타터 총리는 그가 평화위원회 가입에 대해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거절 방침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다. 출범 첫해 회원국에 한해 10억달러를 내면 영구 회원권을 얻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지역의 현안으로 확장해 유엔을 대체하는 국제기구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을 포함한 60여개국에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청 국가 중에는 서방과 대립 중인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포함되면서 미국의 서방 동맹국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참여를 사실상 거부했고, 스타터 총리까지 초청을 거절 방침으로 전해진 것이다.

/연합뉴스



독일 서부에 나타난 북극광.

/연합뉴스

## 서유럽 하늘 수놓은 오로라 ‘장관’

강력한 지구자기장 폭풍 타고 남하

19일 밤부터 20일 새벽 사이 벨기에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 하늘을 북극광(오로라)이 수놓았다.

오로라는 보통 극지방에서만 볼 수 있지만 이 날은 강력한 지구자기장 폭풍을 타고 남하하며 곳곳에서 장관이 펼쳐졌다.

서유럽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온라인에 밝은 녹색, 붉은색, 분홍색의 신비한 광선으로 물든 아래에 강도인 G4 등급까지 도달했다. 이런 강도는 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GPS 시스템 등에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독일 dpa 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 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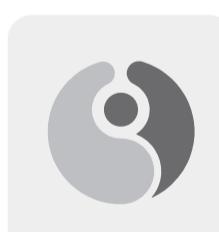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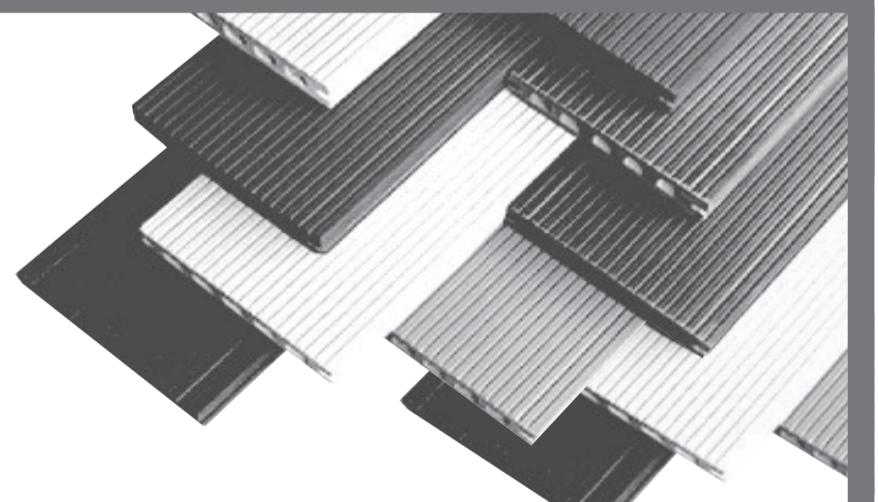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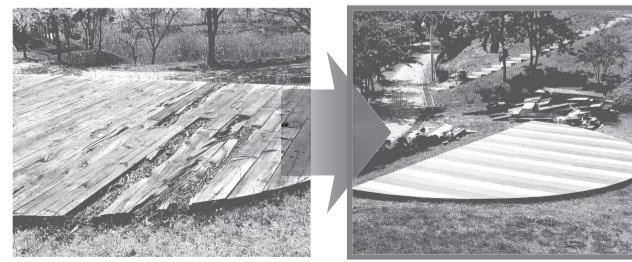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 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 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로토어벤처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